◉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오늘 오후2시 지하 친교실에서 2008년 당회가 열립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 2009년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을 신청받습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만 신청 가능합니다.

2009년도 설거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희망자는 희망하는 날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주최하는 예수포럼이 15일(월) 오후5시 30분부터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홍순명 선생님(전 풀무학교장)이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17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21일)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올해 하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009학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아부 1명, 아동부 5명, 중고등부 1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학교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대림절기 동안 복음서 중 한 권을 정해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해나가며 바빠진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한 호흡 한 호흡에 마음을 담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일에 치여 소중히 돌보아야할 사람들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쁠수록 기도하며 삶의 무게 중심을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유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외치는 약한 이들의 외침이 경청되지 않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길을 찾아주시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사는 세상의 기본원리인 역지사지를 잊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박시내 방문성 박혜경 김준우 우순덕 김근종 정옥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섭 김신옥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상호 김희진 박홍재 방 민
백묘현 서원금 안정숙 윤영원 이선희 윤수진 이봉옥 임원민 임수연
홍순구 안홍숙 문복순 최현선 김훈동 맹은선 정한주 정미경 장성호
최윤희 전세종 오정숙 안종일 정현주 김재흥 최희영 이성운

월정헌금:
고숙이 권미정 권혁순 박혜경 김남종 오복순 김미순 김영순 김영한
이희균 박경원 박옥순 송의섭 정두리 조순덕 김순자 이해동 구자훈
류건형 이주은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한상익 정영선 황경순 최윤기 박영주 임영선 김희우
이건식 신영신 김정민 이나래 조순덕 이종현 전세종 강미선 지라니
무명5

녹색꿈헌금:
임창선 임영선

(계 : 7,531,000원)

	장 혜 숙 노 순 옥 임 정 자 문 영 혜 안 정 숙 박 홍 재 박 효 선 최 숙 화 이 순 정 이 형 숙 안 홍 숙 백 혜 숙 송 양 진 이 영 란 박 혜 경	장 혜 숙 정 경 례 임 정 자 박 경 선 박 애 순 곽 권 희 허 정 윤 권 미 정 김 금 순 권 미 숙 오 현 정 정 옥 영 유 경 순 박 미 영 최 영 혜	연 합 속 회	쉼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만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 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 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속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 막스 에르만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며 사십시오. 이기적인 욕망의 간구는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음을 믿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전전긍긍하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나누고 돌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섬기듯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2008년도 당회	성서에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하현철 권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송한별 선생 한상익 장로	인도자 배근수 집사

12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훈동 정원석 박혜경 유경순 김현영
	헌금위원	윤석철 문영혜(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시간 없을 때 시간이 있다

언젠가 제가 너무 바쁘다고 하자 '시간 없을 때 시간 있고, 바쁠 때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누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제 시작노트 맨 앞장에 그 말을 적어놓고 자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득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없이 바쁠 때도 그 일을 해내기 위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을 때에 오히려 더 시간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냥 뜸들이고 늦장을 부리다가 그만 시간에 쫓기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청탁받은 원고 마감일이 많이 남았을 때 오히려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약속장소에 가장 늦게 나타나는 사람이 약속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자칫 게으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 게으름을 부릴 때 오히려 시간이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다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게으름을 위하여 쓰이면 시간이 없는 경우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거나 '바빠 죽겠다'는 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아마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저도 툭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하면 꿀꺽 삼켜버립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공연히 저 혼자 시간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제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

시간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시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창조되어야만 비로소 자기만의 시간이 됩니다. 미하엘 엔데의 동화 『모모』에 보면, 시간의 주재자인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시간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은 참된 소유자를 떠나면 죽은 시간이 되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늘 참된 소유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시간의 참된 소유자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함으로써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귤도 남쪽에 있는 서귀포 귤이 더 당도가 높고, 서귀포 중에서도 남원 지역의 귤이 더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귤나무라도 윗가지에 달린 귤이 아랫가지에 달린 귤보다 더 당도가 높고 맛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볕을 쬘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귤 하나도 햇볕을 자기 것으로 만든 노력의 시간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당도와 맛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프란치스꼬회 박재홍 수사님은 "시간은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노력의 결실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무를 심었다면 나이테 안에 존재하고, 내가 사랑을 심었다면 따뜻한 그대 마음 안에서 시련을 극복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내가 마음을 온유하게 갈고 닦았다면 온화한 언행 안에 존재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면 좀더 나은 세상 안에 존재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건강 안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잠들어버림으로써 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간은 낭비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모』에서처럼 시간은 저축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녀 모모는 시간을 저축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저축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을 충실히 사용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내일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나의 것인 것 같지만 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신의 것이며, 신으로부터 잠시 빌려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빌린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신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간을 낭비하거나 소중하게 쓰지 않았다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 정호승